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 쾨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c@gmail.com

제1독서: 창세 14,18-20

제2독서: 1코린 11,23-26

복음: 루카 9,11ㄴ-17

청년 성가집 입당: 6

봉헌: 75

성체: 178

파견: 306

◆ 화답송



(후렴) **멜 키 체 텍 과 같 이 너 는 영 원 한 사 제 로 다.**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뺏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게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제2독서 후 부속가 <성체 송가>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포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나무를 심는 양치기”

한때 숲이 무성해 사람들이 모여 살던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고원지대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의해 폐허의 땅으로 변해 버렸고, 나무가 없어 버림받은 땅이 됐다. 이것을 깨달은 한 양치기 노인이 이 지대에 나무 심기를 시작한다. 그로부터 40여 년, 그 황무지가 아름다운 숲으로 뒤덮이게 되자 사람들이 찾아와 기쁨을 노래하는 생명의 땅이 되었다고 한다. 소설 같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탄복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나선다. 보통은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제 몫의 양식을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최소한의 음식조차 구비하지 못한 채 길을 떠난 것을 보면 예수님께 제대로 빠졌던가보다. 그런데 제자들에게겐 민생고 해결이 고민이다. 우리가 있는 곳은 ‘황량한 곳’이니 그들을 돌려보내자는 논리 정연한 제자들의 해결책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너희가” 주라 하신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빵과 물고기를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라 하신다. 제자들로 하여금 ‘황량한 자리’를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일꾼과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의미인 듯하다.

살아가면서 욕심이 늘어나는 만큼 땀 흘려 가꾸는 것이 힘들어진다. 황량한 곳을 개척하고 가꾸기보다는 무관심하거나 버려두고 떠나는 것에 익숙해진다. 교회, 가족 그리고 동료와 내 마음까지도 말이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성체와 성혈을 통해 ‘나’라는 ‘황량한 곳’에 작은 나무를 심으신다. 폐허의 땅에 묵묵히 나무를 심는 양치기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과 나눔, 친절의 나무를 심어보자. ♠

예수 성심 성월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응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복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송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 바자회 결산

수입	금액	지출	금액
단체별 판매	\$10,561.82	Permit, 트럭대여, 이벤트, 수령하지 않은 상품리턴, 준비비 외	\$5,227.99
티켓 판매	\$6,939.00		
후원금	\$ 7,350.00		
수입합계	\$24,850.82		
총 순수익금		\$ 19,622.84	

*제21회 바자회 순수익금은
미국본당/이민자센터/한인공동체 모두 \$5,887.00,
내년예비비(\$1,961.84)로 사용됩니다.
교우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그릭온.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INE & WEST 8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러언스한방병원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 (b/t 40&41st)
212.203.0072 (문자가능)
예약/문의 카톡ID: nycacu

◆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가족
민병택 베드로	박명심 모니카
김용각	이상홍 스테파노
이영우, 이태묘	경원유, 엄기섭, 김한숙
이성범 안드레아	이경자 벨라데타
이현재 요한	유희순 그레이스
유현일	
생미사	이서원 마리로사
바다의 별 Pr	이미숙 안나
이흥규 요한, 이로잔 캐더린	익명
박재호 베네딕도 부부	익명
안영옥 분다	익명
이지연 안나레지나 가족	최병남 미카엘라
김승범 프란치스코	최병남 미카엘라
최 소피아	이영해 안젤라
강견대 마리아 가족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김영복 아네스, 김용기 요셉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진홍섭 오도 가족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진재형, 진재경	양미숙 마리아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가족
유태열 잔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6월 23일	양정윤 젼마	이한주 요한	원혜경 아네스	이경은 에스텔	김유화 데레사	박승민 최재원	한창희 이재인	박민재 박정자 김종선 김지영 이규원 이은경 이서원 김창훈
6월 30일	이영로 울리안나	정동주 유스토	이경자 울리안나	신혜정 소화데레사	김애희 테클라	정봉애 김신옥	김진섭 오윤서	김성중 신윤길 채미재 신정목 신애송 이영근 채봉석 이경숙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오늘, 레지오 "바다의 별Pr"에서 주회 1,000차를 기념하여 떡 봉헌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은 불우이웃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사목회의**가 2층 컨퍼런스 룸에서 11시 15분에 있습니다.

➢ **요셉회, 성모회**가 다음주일(6/30) 야외 행사를 합니다. 미사 후 출발하며 장소는 Tallman State Park입니다.

◆ 공 지 사 항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인 6월 28일(금)은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모든 사제들과 특별히 2008년에 서품되어 착한 목자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오신 김성인 미카엘신부님을 기억하시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성경 공부 일정

주요일 (매주)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30일 휴강)	오후 1시30분~2시50분	

➢ 첫 고백 안내

일시 및 장소 : 6월 매주일 8:40am / 아래성당 고백소
대상 : 지난 파스카 성야 때 세례견진을 동시에 받은 분들

➢ 제 37차 미동북부 지구 울뜨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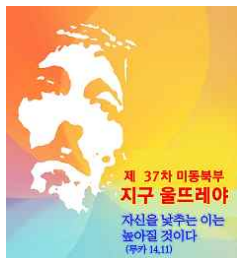
일시 : 7월 4일 9:30am ~ 4:00pm
장소 : 데마레스트 성당
(573 Piermont Road Demarest, NJ)

^ 참가비는 없습니다.

점심과 기념타올을 드립니다

^ 일반 신자분들의 참가는

울뜨레야 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사무실 휴무 안내(6/24~7/4)

본당의 김 헬레스틴 수녀가 2019년 북미주수녀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연중피정에 참여합니다. 미사신청은 주일만 받으며, 각종 증명서 발급은 7월 5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청년 성가대 성가대 단원 모집

청년성가대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성현 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 청년 성가대 반주자 모집

청년성가대 '처음처럼'과 함께 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박성현 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 주일학교 교사 모집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stfrancisks@gmail.com)

➢ 미동북부 성령 대회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마태 9,29)

일시 : 7월 20일(토) 9am~9pm, 21일(주일) 9am~5:30pm
장소 : Felician University / 262 S.Main St.Lodi, NJ 07644
참가비 : \$40(토요일 점심, 저녁 / 주일 점심 포함) / 모든 참가자분들께 대회 강의녹음 USB 1개 증정
신청마감일 : 본당 성령기도회에 7월 14일(주일)까지
주최 : 미동북부 성령채신 봉사자 협의회
문의 : 이은경 헬렌(917.921.9619)

➢ 제 30차 메주고리에 유스 페스티벌

기간 : 2019년 7월29일~8월7일(9박10일)
참가경비 : \$980+항공료
문의 : 박민재 아그네스(646.808.7322)

➢ 재속 프란치스코 뉴욕 한국순교자 형제회 회원 모집

기한 : 6월 30일까지
문의 : 조남록 미카엘(347.276.0163)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1,110
양업회 판매금	\$ 655
합 계	\$ 1,765

❖ 교무금 :

이영근 김행자 문예하 배인철
최병남 김영희 박아영 박종섭 주현경

“성경 맛들이기” - 열왕기 상 · 하

명칭과 개관

사무엘기 하권이 다윗의 일화로 마무리된다면, 바로 이어 등장하는 열왕기 상권은 다윗의 말년과 죽음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연계성은 이 두 책이 본래 서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은 칠십인역이 왜 이 책들을 ‘왕국기 1·2·3·4권’으로 간주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다윗의 통일 왕국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되는데, 다윗 왕조는 유다와 베냐민 지역을 통치하였고, 그 외의 지역들은 다윗 왕조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창건한다. 남 왕국이 ‘유다’라는 부족의 이름을 그대로 보존한 것과는 달리 북 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름을 선택한다. 이 두 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공존하였고, 남 왕국 유다는 홀로 명맥을 유지하다 기원전 587년 신흥 바빌론에 의해 멸망한다. 이러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열왕기이다.

이 책은 히브리 경전에서 ‘임금들’이라는 제목으로 불리지만, 칠십인역에서는 ‘왕국기’의 셋째, 넷째 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열왕기’라는 우리말 제목은 이 책이 임금들의 이야기를 열거한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나 열왕기의 저자는 임금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느님과 맺었던 관계’에 집중하여 이스라엘의 죄(특히, 임금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

저술 목적

신명기계 사가들은 자기네 신학 사상에 근거하여 왕정 역사를 써내려 감으로써, 지나간 역사를 통해 하느님의 가르침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열왕기가 최종 편집된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최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유다의 멸망(기원전 587년) 이후이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에 의해 파괴되고, 왕과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참상을 겪게 되면서 실의에 찬 유다인들과 그 후손들을 위하여 쓰였다.

신명기계 사가들은 이러한 멸망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버리고 계약을 파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느님과의 계약에 불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굳건히 세우시라라는 희망을 불어넣으면서, 회개를 촉구하려고 열왕기를 편집했다.

메시지

열왕기의 근본 메시지는 다음 3가지 신학적 주제로 나뉜다.

1) 이스라엘에 내린 무서운 재앙은 전적으로 계약과 성전에 불충했던 왕들 때문이지 하느님이 계약을 어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저자는 신명기 율법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이외 지역에서의 경신례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왕들을 단죄한다.

2) 모세를 통하여 시나이계약으로 이스라엘을 이끈 분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세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형성해 왔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성취시킨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통치자들의 억압과 백성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도덕 기초를 제시하고, 죄를 책망하며, 하느님의 정의를 외쳤다.

3)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하느님의 약속(2사무 7장)은 성취되어야 한다.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은 저자 자신을 위해서나 모든 이스라엘인에게 신앙의 문제이어야 했다.

저자는 다윗 왕조의 영구적 통치와 긴밀하게 연관된 예루살렘과 성전에 관하여 비상한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왕국의 멸망 원인이 역대 왕들과 백성이 시나이 계약에 불충하여 유일하신 하느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과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존중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신명기 신학에 담긴 열왕기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파멸 또는 재생이 왕과 백성의 야훼 신앙의 충실성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다. 종교적인 부패가 개인이나 민족 멸망의 최종 원인이며, 순수한 신앙에로의 복귀만이 참 삶을 보장해준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간지로 이어집니다.>